

조선족 문화를 알리는 ‘평범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 조선족 문화 노래하는 김정구의 ‘진짜 나’를 찾는 려정



“꿈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2019년, 32세의 나이에 과감히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음악의 길로 들어선 그의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반면 안정적인 월급, 사회적 인정, 부러움을 사는 직장생활을 접은 그의 선택은 오로지 “노래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말한다. “꿈을 위해 모든 걸 버렸다는 표현은 어색해요. 오히려 꿈을 위해 진짜 ‘나’를 찾은 거죠.”

일전 기자는 김정구를 만나 그는 왜 공학도에서 가수가 되었으며 어떤 마음으로 조선족 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지를 들어보았다.

◎ 예술가 가정에서 태어나 개발자로 살다 찾은 음악의 길

“부모님 모두 예술을 하셨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선택한다면 혹시 자신들처럼 현실의 벽에 부딪쳐 실망할까 봐 걱정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제날 예술단에서 가수로 활약하셨던 아버지는 기타도 정말 잘 치셨는데 저 예전 절대 악기를 가르쳐주지 않으셨거든요.”

고배를 마신 적 있는 부모님은 그래서 아들이 음악을 취미로만 즐기길 바랐지만 ‘예술유전자’ 어디 안 간다고 김정구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학교에서 열리는 예술절은 물론 어느 곳에서 노래경연이 있다는 소리만 들려도 차표부터 먼저 끊을 정도였었다.

그러나 그는 부모의 기대대로 학생의 본분을 다했고 공부 성적 또한 우수했던 터라 대학입시에서 예술과는 무관한 대학을 지망했다. 흑룡강과학기술대학 전기공정및자동화가 그의 대학 전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도 끼를 감출 수 없었던 그는 “대학 시절 내내 무대에 있었던 기억뿐”이라며 그 시절을 회상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가수라는 직업은 그의 진로 선택에서 우선 사항이 아니었다. 졸업후에는 여느 취준생들이 그러했듯 전공을 살려 대기업에 들어갔고 개발자의 삶을 살았다. 운 좋게 상해에서도, 광둥에서도 다 대기업에 취업하면서 그는 그때 당시 동년배에 비해 월급도 높았고 대우도 좋아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고 한다.

남부러울 것 없는 그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게 또 잔잔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이건 진짜 배우른 흥정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정말 그랬어요. 회사 개발팀의 일원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성취감도 컸지만 무대에서 노래할 때 만큼 마음이 뛰는 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년말년시 송년회 시즌이 되면 되게 신났다.”며 멋지게 웃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그는 2019년, 삼십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왔다.

◎ 안정을 버리고 예술을 택한 새로운 도전

늦깎이 가수 데뷔라니... 사직서를 낼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반대할 정도였다. 주변의 리해 못할 시선 속에서



몇해전 해남에 갔을 때 리족 악기를 접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이 오히려 그의 꿈을 지지해주었다. 아들의 열정 앞에 예술을 반대했던 부모님은 “네가 원한다면 하라”고 힘을 보태주었던 것이다.

가족의 응원을 등에 업었지만 아무런 연출도 없었던 그는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때 참가한 것이 한 대형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중국의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자칭 순 노력파라고 밝힌 그의 집념 덕분에였는지 예선전에서 김정구의 음색을 알아본 한 음악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의가 들어올 줄이야. 첫 ‘데뷔 시도’ 만에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체결했다.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한 셈이다.

지금은 1인 기획사로 홀로서기에

나섰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초창기 시절 저에게 많은 배움을 준 고마운 회사”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 조선족 문화 선양과 음악적 꿈을 향한 려정

그런데 공연을 다니며 김정구는 뜻밖의 발견을 했다. 일부 남방지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이라는 민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왜 모를까?’ 의문을 품다가 그는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고 나도 56개 민족에 대해 자세히 잘 모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 경험은 중국 전역에 조선족을 소개하고 조선족 문화를 알려고저 하는 그의 강렬한 사명감을

문의 초청을 받기도 했고 중앙 TV 방송, 산서 위성 TV 방송 등 전국 여러 TV 방송국의 러브콜을 받고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며 점점 더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김정구의 틱톡계정에 들어가면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하북성 진황도시 북대하에 있는 조선족마을을 찾아가는 영상이며 해남성, 강소성, 료녕성 등 지역을 탐방하며 조선족 문화를 기록하고 소개하는 영상들이며... 지난해 국경절을 맞아 <나와 나의 조국>을 조선말 버전으로 부르는 영상이며 대히트를 친 영화 <나타>를 직접 조선말로 가사를 붙여 부른 영상들 모두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지금도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조선족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악기와 음악에도 관심이 많다고 밝힌 그는 다른 민족 음악인들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이다. 그의 계정에는 다른 민족 음악인들과 음악을 공유하고 서로 민족악기를 연주하는 영상도 있고 조선족은 물론 다른 민족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도 눈에 띈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그중에서 좋은 점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민족 대 융합”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 ‘외지인’의 시각으로 본 연변

흑룡강에서 나서자란 김정구는 류창한 조선말을 구사하지만 그전까지 연변에 와 본 적은 없다. 여태 전국 각지를 다니며 조선족 문화를 탐색한다고 했지만 그는 연변이야말로 조선족의 민족문화가 가장 풍부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나도 직접 못 본걸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할 자격이 있을까?’ 그는 2024년초 연변행을 결심한다.

“‘외지인’의 시각으로 연변을 보고 느껴려 했어요.” 그는 첫 방문지로 연변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에서 그는 조선족 줄다리기(拔草龙), 조선족 온돌 등 여태 본 적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다. 또 부동한 시기의 전시품들을 통해 그 배후의 역사, 인물, 이야기와 백성들의 생활 정황을 자세히 료해할 수 있었다. 서시장, 하남시장, 지하상가 등 연길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을 찾아가고 골목골목 돌아보면서 그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가장 연길다운 모습을 엿보았다.

진실된 체험을 통해 나온 그의 연변 행 영상은 많은 이들에게 연변의 문화와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제 영상을 보고 연변에 대해 알게 됐고 또 관광을 다녀왔다는 팬들의 말을 들을 때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6월 김정구는 연변의 음식, 풍경, 인문환경을 노래하는 창작음악 <연변 빛>을 발표해 그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광광도시 연변의 매력을 노래에 담았다.

◎ “꿈이요? 대표작으로 기억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김정구” 하면 대표작이 떠오르고 히트곡이 흥얼거려지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더불어 “가끔 저보고 ‘조선족 문화 홍보대사’라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단지 조선족 문화를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은 너무 무거워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음악을 만드는 가수, 조선족 문화를 알리는 ‘평범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 김가혜 김영화 기자



요즘 뜨는 영화 <남경사진관>

감독은 ‘85 후’ 조선족 청년



신오 감독

/ <남경사진관> 영화제작사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남경사진관>(南京照相館)이 2025년 7월 25일 개봉한 이래 8월 15일 0시 기준, 총 흥행 수입 24억원을 돌파하며 중국 영화사 여름철 휴가 시즌 역사영화(历史片) 흥행 수입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일전 영화사측은 상영 기간을 9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뿐더러 북미,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도 속속 개봉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명을 이끌어냈다.

관객들의 가슴을 절절하게 울리며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이 영화는 관객들의 고향집으로 작품성과 흥행성 두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

<남경사진관>은 남경대학살 기간 일본군의 실제 범죄 증거 영상을 소재로 하며 ‘길상사진관’이라는 피난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처음에는 대학살에서 목숨만 부지하려 했던 사진관내 백성들이 일본군 사진사의 필름을 현상하다 우연히 일본군의 도시 학살 증거 사진을 발견하게 되고 일본군의 만행과 동포들의 고통, 민족의 종말에 직면하면서 결국 이 증거 필름을 보존하기로 결정한다...

렌즈로 역사의 깊은 진실을 드러낸 이 영화의 감독은 알고보니 ‘85 후’ 조선족 신오였다.

프로필 소개에 따르면 신오는 1986년 9월 11일 북경 출생으로 북경영화학원 감독전공을 졸업했다. 대표작으로는 <수익자>(受益人), <고주일척>(孤注一擲), <용무지>(用武之地)와 연속극 <신생>(新生), 단편영화 <나는 용감하지 않다>(我不勇敢), <조주랑>(潮逐浪), <하룡천강>(河龙川岗) 등이 있다.

2005년에 스스로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첫 단편영화 <하룡천강>(河龙川岗)이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차 수상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스스로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첫 영화 <수익자>(受益人)가 제 15회 중국장춘영화제 최우수

수 최녀작상과 제 33회 중국영화 금계상 최우수 감독 최녀작상을 수상했다.

2023년에 연출을 맡은 영화 <고주일척>(孤注一擲)은 개봉한 후 흥행 수입이 38억 4,800만원을 돌파하며 2023년 여름철 휴가 시즌 흥행 수입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제 42회 항향영화금상장 최우수 아시아영화에 노미네이트되었다.

그리고 올해 여름철 휴가 시즌에 상영된 <남경사진관>은 신오 감독의 세번째 장편영화인바 이 영화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올 여름철 휴가 시즌 흥행 1위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인민넷에 발표된 영화평에서 북경영화학원 교수실천중심 교원 사양은 이 영화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남경사진관>의 등장인물과 이야기는 특정 역사적 원형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범죄 증거 사진들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것들이다.

이 영화의 창작자는 피비린내 나는 장면을 선보이는 대신 한 사진관으로부터 접근하여 남경에서 생활하는 7명 평범한 시민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들 중에는 우편배달부, 배우, 순경, 사진관 주인 일가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우리 대부분과 같은 평범한 이들이다. 그러나 직접 현상한 범죄 증거 사진과 일본군의 잔학 행위, 동포들의 비극적 처지를 마주해서는 모든 중국인이라면 똑같이 내려올 선택을 한다. 어떻게 협력해 이 필름을 숨길 것인가, 어떻게 범죄 증거들을 밖으로 전달할 것인가는 이 영화의 주요 서사 구조인데 작은 인물들의 시각으로 시대적 배경을 비추는 이야기는 관객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다.

<남경사진관>에는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백인잡’(百人斬), ‘피로 물든 장강’ 등 실제 만행 장면들이 등장하지만 창작자는 영화의 서사 동력을 ‘보이지 않는 민족정신’의 시각적 구축에 더욱 의존했다. 피비린내 나는 장면은 절제되게 묘사되어 역사적 진실과 예술적 진실 사이의 균형을 훌륭히 잡아냈다.

이 영화의 줄거리 구조, 촬영 기법, 인물 형상화는 집단적 감정의 고양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렌즈는 실제 장면과 인물들의 상태를 기록하지만 편집 리듬과 서사 전개는 대부분 ‘희생을 통한 구원’과 ‘생명의 구원’을 중심으로 감정적 고조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감과 사유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집단적 기억’이라는 정신적 동질감에 도달하게 된다.

/ 김가혜기자



<남경사진관> 포스터 / <남경사진관> 영화제작사